

현대패션에 표현된 하이브리드 경향 연구

- 1990년대 후반을 중심으로 -

임 영 자 · 한 윤 숙¹⁾

세종대학교 생활과학부 패션디자인 전공 교수 · 세종대학교 생활과학부 박사후 연수과정

A Study on Hybrid Expressed in Modern Fashion

- Focusing on the End of 1990s -

Young-Ja Lim · Youn-Sook Han

Dept. of Fashion Design, Professor of Se-Jong Univ. · Post-Doc
(2001. 6. 13 투고)

ABSTRACT

This study was carried out with an objective to prepare the framework of conformity for the 21st century modern fashion, which is interactive with mankind, based on a position that the 21st century contemporary fashion with its amalgamating trend of diversified artistic forms may not be elucidated on a standpoint centering on one certain modality.

The hybrid fashion trend of historical modality which provides freedom and satisfaction in creation of an individuals expressive power in expressing true desire of mans inside through man-centered thought of the times has made multifarious motives of the past and present fragmentary. It thus extracts inner divisions and the concept of consolidation through three-dimensional form.

Modern fashion is newly interpreted by the material and details of high technologies, and is harmonized by mix and match with various expressions. By having it, it is being expressed together with many types of dresses and ornaments. Modern fashion is being expressed together with many types of dresses and ornaments by new interpretations with the material and details of high technologies and by being harmonized with mix and match with various expressions. The hybrid fashion design trend of regional elements formed by stimuli and contacts of diverse local culture by globalization of network that was achieved by scientific technologies of the contemporary information society has disintegrated varied boundaries in the conventional culture by the latest communication technology-new media on the basis of newly created culture. The fact that regional elements could be expressed as if they were interrelated without each being deprived of originality may be explained with an interpretation on pluralism.

1) 본 논문은 2001년 한국학술진흥재단 두뇌한국21 핵심분야 연구비에 의한 것임.

The hybrid fashion design trend of cultural aspect, which manifests in the background of scientific technological culture as it transcends the societal-cultural boundaries based on the de-centralization theory of Frederic Jameson, has supplemented the imperfect meanings through conversational correlation with other forms and internal program changes. The middle stratal and polyhedral characteristics are seen as each cultural element is dismantled and reassembled by application of 'multiple-time point expression'.

Design forming method is not to bring destruction from outside, but to embrace instability and chaos through radical dismantling of the inside, and to pursue diversity and openness. Thus, it is implemented by an approach that takes the role of design process. In communication of discontinuity, continuity was dismantled through forms of mixing, overlap, perversion, insertion and coincidence.

Key Words : Hybrid(하이브리드), Oullim(어울림), Retro-Look(레트로 룩), New Media(뉴 미디어), metamorphosis(메타모포시스)

I. 서론

21세기를 맞은 현대의 패션은 여러 가지의 예술 개념이 도입되어 복잡한 여러 양식이 혼재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많은 연구자들은 이러한 경향을 연구하여 현대 패션의 아방가르드(avant garde)경향¹⁾, 절충주의 경향²⁾, 불확정성³⁾, 동양적 이미지⁴⁾ 등으로 분석하였다. 이런 경향은 21세기의 다양한 양식의 혼재로 인해 상품과 사용자간에 인터랙티브(interactivity)한 개념이 도입되어 개인의 취향이 존중된 제품으로 변화하기 때문이다. 과학의 발달과 함께 가능해진 인터랙티브한 제품들은 사용자의 행동패턴과 물리적, 신체적 특징, 심리적인 변화, 정보처리에 필요한 인지과정 등 인간과 제품이 상호작용을 이루는 인터페이스(interface) 개념이 바탕이 되고 있다.

현대인이 살아가는 정보시대에서 커뮤니케이션 매체는 그 기능에 따라 서로 분리되어서, 방송은 TV 수상기·음성전화는 전화기·컴퓨터 서비스는 컴퓨터를 고유의 플랫폼으로 하여 그 서비스를 제공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디지털, 네트워크,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의 혁신으로 모든 서비스를 같은 네트워크로 통합된 기기를 사용해 전달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 방송산업, 컴퓨터산업, 통신산업은 상호 융합함으로써 고유의 영역을 넘어서고 있으며, 최근에는 특히 인터넷을

중심으로 각 산업부문이 융합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서로 다른 두개의 기술이나 시스템이 결합되는 것을 '잡종', '혼성물'을 의미하는 '하이브리드(hybrid)'⁵⁾ 라고 한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예술 양식의 혼재 경향을 보이는 21세기의 현대 패션이 어떠한 하나의 양식을 중심으로 하는 관점으로는 설명될 수 없다는 것으로 이해하여, 21세기 사회·문화적 현상인 정보사회 형성과정과 관련하여 '하이브리드 패션 디자인 경향'이라 정하고 현대정보사회에서 하이브리드의 개념과 특징을 살펴본다. 이러한 하이브리드 경향이 현대패션에 표현되는 경향을 현대 정보사회의 특징과 연관하여 역사적 양식, 지역적 요소, 문화적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방법에 있어서 하이브리드의 개념 및 특징은 물리학과 재료학 그리고 경영학의 문헌자료들을 바탕으로 고찰하였고, 현대패션에 표현된 하이브리드 패션 경향의 분석에 있어서는 현대정보사회의 특징과 연관하여 복식사 자료, 패션디자이너의 개인 작품집, 「산업디자인」, 「디자인」, 이탈리아의 패션 전문 잡지 「Modain Collezioni」, 「Vogue(한국판)」, 「Elle(한국판)」, 「Mode et Mode」, 「Max Mara magazine(한국판)」, 「GAP Collections」 등의 자료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II. 하이브리드(hybrid) 패션 디자인 경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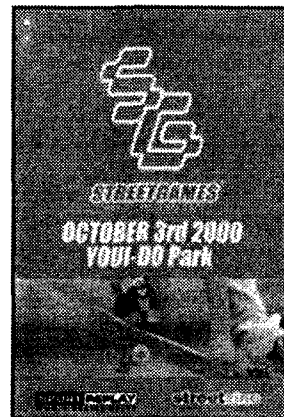
1. 하이브리드 패션 디자인 발생 배경

자크 아탈리(Jacques Attali)는 조립프로그램을 가지고 분자, 재료, 더 나아가서는 사물을 재구성하기 위해 원자를 하나하나씩 조립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물리학과 컴퓨터 공학의 만남을 '나노테크놀로지(nanotechnologie/nanotechnology)'라고 설명한다.⁶⁾ 하이브리드의 연구는 재료학의 분야에서 나노복합체를 기본 기재재로 사용하고 인성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여 하이브리드 복합체를 제조하거나,⁷⁾ 반도체 분야에서 써미스터의 온도와 전기저항에 영향을 적게 받게 하기 위해 신기능을 추가하고 복합화, 소형화, 고신뢰화 등의 센서의 지능화 기술력으로 풍속센서, 습도센서, 수위감지센서, 가스센서, 풍향센서 등으로 하이브리드 소결법⁸⁾을 이용하기도 하며, 과학기술원내 고분자 하이브리드 연구센터에 의하면 하이브리드소재는 기능 설계나 물성 극대화가 용이한 차세대 소재로서 핵심기술의 복합성으로 인하여 여러 분야의 전문화된 연구 인력의 조직적, 유기적 협력을 필요로 한다⁹⁾고 한다.

엔진과 전기모터 2개의 동력원을 갖고 목적에 따라 각각을 효율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에너지 절약과 저공해를 달성하려고 만들어진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엔진 기술과 전기 자동차 기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기술의 융합이다. 한국에서는 현대자동차에서 FGV-II(Future Green Vehicle : 미래 환경 친화 자동차)가 개발되었다. 하이브리드미디어<사진 1>란 인쇄매체, 인터넷, 이동통신의 WAP(Wireless Application Protocol), 그리고 디지털 위성 TV가 결합된 종합적인 미디어 시스템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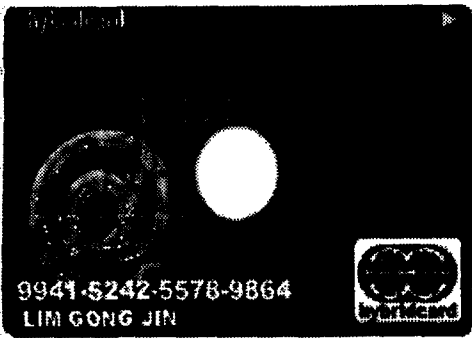
각각의 미디어들은 독립적으로 발전하며 매체간에 단점을 상쇄시키고 각종 자원을 공유하며 매체간의 특징점을 극대화하는 효과를 가진다.¹⁰⁾ 경영학에서도 '하이브리드 매니저(hybrid manager)'라는 신조어가 있다. '하이브리드(hybrid)'는 원래 피터 킨(Peter Keen)에 의해 1980년대 중반에 만들어

진 용어이지만, 마이클 얼(Michael Earl)에 의해 정의되어졌다. 그는 하이브리드 매니저란 "기술적인 능력과 적절한 비즈니스 지식을 가진, 또는 적절한 기술적 능력과 뛰어난 비즈니스 지식을 가진 사람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성공적인 하이브리드 매니저에게는 기술적인 지식은 물론이고 조직에 대한 지식과 경영 능력 모두가 필요하다.¹¹⁾ 이러한 조류에 따라 현대경제연구원에서도 "제품혁신을 위한 하이브리드 접근법"이 연구되었다. 급변하는 기업 환경 하에서 기업이 지속적인 생존과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부단한 제품혁신이 필요하지만 그 성공확률이 극히 낮다. 따라서 제품 혁신의 성공을 위해 하이브리드 접근법을 활용하는 것이 유용하다¹²⁾고 밝히고 있다. 하이브리드 접근법이란 프로세스, 기술, 시장, 계량, 속도 그리고 학습 전략 등을 모두 고려한 복합적인 제품 혁신 접근법을 말한다.¹³⁾ 하이브리드 카드(hybridcard)<사진 2>는 기존의 일반 신용카드나 은행현금 카드가 마그네틱 테이프(magnetic tape) 하나만을 가지고 신용정보를 기록했던 것과는 달리 마그네틱테이프 이외에 광자기디



<사진 1> 하이브리드 미디어, 'streetzine.com'의 poster, <http://www.streetzine.com/company.struc.htm>

스크(CD)와 전자집적회로(IC칩)까지 포함하는 삼중 저장매체를 이용하는 세계 최초의 신개념 전자 신용카드이다. 하이브리드 카드는 인터넷을 통한 on-line 세계와 신용카드 기반의 off-line 세계를 직접 연결해 주는 전자화폐이다.¹⁴⁾



<사진 2> Hybridcard

· 크기:86mm*54mm · 메모리용량:34MB · 동영상:3분
 · 음향:15분(MP3 기준) · TEXT 2500page
 'about HYBRIDCARD'
<http://www.hybridcard.com/product.html>

즉 하이브리드 접근법은 Jacques Attali가 정의하는 '레고문명'을 이루는 방법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문명은 과학기술이 바탕이 되어 '지구촌화(globalization)'를 이끌게 되는 것이다.

건축에서 하이브리드란 개념은 근대의 단순, 추상적이고 순수성에 대립되는 개념으로 파악될 수 있으며, 대립을 기반으로 하는 양자공존(하이브리드의 방법)과 난해한 전체(하이브리드의 결과)라고 규정할 수 있다.¹⁵⁾ 난해한 전체는 복잡과 적응을 형성하는데, 이 역시 배제보다는 포섭적 성격을 지니며, 계획상 이중성이 요구되는 곳에 이를 감추지 않고 그 이중성을 개발하고 용해하여 개개 부분들의 어법, 구조적 연속성과 표현적 불연속을 전체로서 결속한다.¹⁶⁾ 하이브리드 건축이란 용어는 구체적 개념으로 어떠한 사조나 양식을 표현한다기 보다는 건축의 복합성에 대한 현상학적인 의미로 사용된다고 할 수 있다. 현대건축에서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는 하이브리드에 대한 관념은 포스트모더니즘(postmodernism)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론적 배경과 형태구성의 원리가 다르기는 하지만 네오모더니즘(neo modernism)에도 하이브리드의 양태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¹⁷⁾ 따라서 현대건축에서 하이브리드의 개념은 건축의 다원성과 규범해체의 과정에서 도입된 개념으로서, 건축자체의 복합성(구조·기능·기술·미)에도 내제되어 있으며, 16세기후반의 매너리즘(mannerism) 및 18-19세기의

절충주의(eclecticism) 그리고 20세기초의 과도기에서 비롯되는 매우 포괄적이며 넓은 적용범위를 갖는다¹⁸⁾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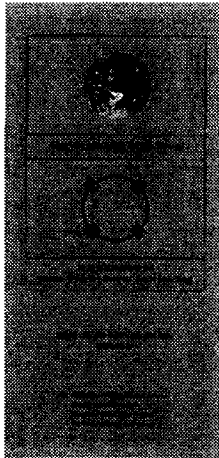
하인리히 클로츠(Heinrich Klotz)는 "건축이 추가적인 기능요구를 만족시키고 또 기본 형태를 가능한 간단히 한다는 다른 규칙에도 따르는 한, 또 건축이 추상적인 것을 따라서 대상물화 하는 경향이라면, 나는 그것을 포스트모던 건축이라고 하겠다."¹⁹⁾고 하였다. 이와같은 언급과도 같이 하이브리드의 형태를 관찰하면 포스트모더니즘과 해체주의(deconstructivism)를 포함하는 의미를 지닌다²⁰⁾고 할 수 있다.

2. 하이브리드 패션 디자인의 개념

현대사회의 다양한 매체의 발전은 패션 정보를 빠르고 광범위하게 만들었다. 또한 후기 자본주의의 다품종 소량 생산 체제하에서 집단에 대한 소속이나 집단적 정체성의 표현보다는 개개인의 다양한 개성을 표출할 수 있게 되었다.²¹⁾ 이에 따라 상품의 이미지 변경이 품종다양화의 요소로 되고 패션 상품의 다양화가 촉진되게 된다. 20세기 이후 미술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시대를 지배하는 양식적 특징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과 다양한 전위적 운동의 전개와 실험적 시도의 추구로 인해 새로운 장르의 시도가 많아지고 전통적인 장르의 혼합 및 붕괴현상을 보이는 것이다.²²⁾ 또한 존 워커(John A. Walker)는 모더니즘 이후의 사회문화적인 특징중의 하나로 다원주의²³⁾를 언급하였다. 이러한 다원화 현상은 궁극적인 가치의 존재를 부정하며, 수직적인 위계질서보다는 수평적인 다양성을 중시하는 태도이다. 정치, 경제적인 면에서 계층간의 위계와 경계가 무너지고 수평적 관계의 대중으로 이루어진 사회구조로 전환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문화영역에서도 진리나 미를 추구한 가치체계 대신 다양성이 수용되며 모든 영역이 독자성을 지향하기 보다 상호 침투하는 현상을 발견하게 된다.²⁴⁾ 즉 다원주의는 후기 자본주의의 문학적 구조 안에서 불안정과 혼동으로 인해 갈등하면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인간의 욕망에 따라 다양한 스타일과 이념, 문화, 계층, 지역, 국가,

민족 등에 관심을 두면서 다원적인 요소들 간의 수평적인 조절과 조화를 통해 다양한 가치를 추구한다.²⁵⁾

이와 같은 개념은 2000년 10월 24일 코엑스(COEX)에서 개최된 '2000년 세계그래픽디자인대회'의 주제인 '어울림(Oullim)'의 개념과 일맥상통한다고 하겠다. '어울림'은 자연 환경과 사람과 기술 사이의 조화를 말하며, 동·서·남·북간의 조화와, 과거·현재 그리고 다가오는 미래의 조화를 포괄한다. '어울림'은 개체가 무시되지 않고 존중되며, 한 개체가 다른 개체를 파괴하거나 손상시키지 않은 채 전체의 큰 조화 속에서 어울린다. 이때 '어울림'은 대립조차도 다양성 속에서 다시 큰 하나가 되며, 역동적 평행 상태를 이루게 되는 개념을 의미한다(사진 3).²⁶⁾



<사진 3> 2000년 세계그래픽디자인대회 초청장

2000년 세계그래픽디자인대회의 집행위원장인 안상수 교수의 '어울림'의 철학은 '비빔밥'과 '보자기'라고 하였다. 여러 가지 나물류와 밥을 적당히 섞어 비벼 먹는 우리 음식인 '비빔밥'은 친환경적이고, 평화적이며 또 경제적이기도 한 상징적 특징을 지니고 있고, 여러 가지 '맛'이 섞여져 있지만 동시에 구성물 자체가 독특한 맛을 잃지 않은 채 또 다른 하나의 '맛'을 이루어내는 혼성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여러 가지 다른 형식·내용·이데올로기가 있으나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어울림'이라는 하나의 '보자기'로 싸

여질 것이며 그 보자기가 바로 '2000년 세계그래픽디자인대회(Icograda Millennium Congress, Oullim 2000 Seoul)'²⁷⁾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안상수 교수는 한국의 디자이너들이 이 대회를 계기로 최소한 세 가지 측면에서 활용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첫째는 이 기회가 우리 디자인의 과거와 현재를 되돌아 볼 수 있는 '거울'과 같은 계기로, 둘째는 우리가 세계 디자인을 보는 시각과 세계의 디자인계가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디자인의 가능성을 들여다보는 '창문'으로, 셋째는 2000년 세계그래픽디자인대회에 참여하는 모두가 어울려 미래를 위한 '화학적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마당'이 되길 바란다는 바람을 덧붙였다.

패션에서도 1980년대에 들어와서 다원적인 경향이 강해져 The Face지는 80년대의 빠른 스타일의 교체를 지적하며 "오늘날의 패션은 '룩(look)'도 아니며 '스타일(style)'도 아닌 무질서로 빠져들어 혼돈 상태이며 마치 정신병원에 와 있는 것 같다"²⁸⁾라고 표현하기도 하였다. 복식의 다원성은 다른 사람의 복식 문화권에 관심을 두게 된 '탈 중심화'현상으로 반영된다. 이것은 개인의 자유가 제한적이었던 과거의 복식이 '자유 표현의 장'으로서의 역할로 확대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²⁹⁾ 이것은 다양한 문화의 스타일들이 그 스타일간의 경계와 구분이 흐려지게 된 것을 의미하기보다는 대조와 결합의 경계를 충분히 인식한 후 병치에서 오는 재치있는 스타일의 혼합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스타일의 혼합하는 기법으로는 '미/추', '빈/부', '정숙성/비정숙성', '여성성/남성성', '전통성/현대성' 등과 같이 상호 소외의 상태를 유지했지만 포스트모더니즘에서는 그와 같은 개념들이 상호 소외 없이 해체된다.³⁰⁾

패션에서의 '하이브리드'는 다른 패션 감각의 공존을 말하는 것으로 크로스오버(crossover)·융해·융합·합병이라는 의미의 퓨전(fusion)과 동의어이다. 바이오 테크놀로지(bio technology)가 주목되는 시대를 반영하여 생겨난 용어이다.³¹⁾ 따라서 현대 정보사회에서 나타나는 하이브리드 패션 디자인의 경향을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분석하려 한다.

첫째, 과거의 요소를 차용하여 현대의 상황에 맞

게 재해석하여 현대적 요소들과 조화시키는 역사적 양식의 하이브리드 패션디자인 경향을 분석한다.

둘째, 현대 정보사회의 과학기술로 이루어진 전 세계의 네트워크화가 다양한 지역문화의 자극과 접촉으로 형성되는 지역적 요소의 하이브리드 패션 디자인의 경향을 분석한다.

셋째, 디지털 유희민 사회의 수평적 사고로 이루어지는 상·하위 문화와 성의 경계를 초월하는 문화적 관점의 하이브리드 패션 디자인의 경향을 분석한다.

Ⅲ 하이브리드 패션 디자인 경향의 분석

1. 역사적 양식의 하이브리드 패션 디자인 경향 및 분석

현대 정보사회의 과학기술 발달로 형성된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는 시간과 공간에 대한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게 되었다. 비선형적인 커뮤니케이션 구조 속에서 순간성과 즉흥성이 모든 문화에서 강조되었고 이미지는 가장 순간적인 유형으로 상품화된다. 시간의 불연속적인 찰나성, 일시성은 과거의 경험을 현재 속으로 압축하며, 이러한 시간의 압축에 따라 공간 역시 파생적이고 분절화된 순간적 활용의 대상으로 개방된다.³²⁾ 전통적인 시간 개념의 붕괴로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는 그 의미를 해석하는 대상이 아니라 필요할 때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는 이미지의 저장고가 되었다. 패션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역사적 스타일을 이용해 왔고, 비오네(Vionnet)의 드레스는 그리스 스타일의 역사적 양식의 하이브리드이다. 포츨니(Fortuny)의 실크 새틴 드레스는 하이 웨스트 로맨틱 스타일(Romantic Style)의 레트로 룩(Retro Look)으로 표현되었다.³³⁾

시공간적 절충주의의 복고성의 개념은 포스트 모더니즘 복식의 조형에서 가장 중요한 양식적 특성이 된다.³⁴⁾ 복고풍경향은 20세기의 몰 역사주의를 바탕으로 전개된 모더니즘의 반항이라기보다는 고

도의 혼란과 방황, 인위적이고 반항적인 시대 사조에 대하여 안정적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³⁵⁾이다. 복고적 현상은 과거의 것들을 인용, 재인용, 은유, 혼합 등의 방법을 통해 현대에 새로운 형식으로 표현되는데, 복식분야에서는 자율적인 미적 가치를 실천하려는 대중의 욕망을 이미 익숙한 것을 차용함에 의해 충족시키려 하는 중요한 표현이 된다.³⁶⁾ 이러한 복고의 유형은 역사적 내용의 '재현'이 아니며 '과거성'을 이미지의 차용에 의해 전달하는 것으로 과거의 유형적인 함축(이상성을 제공하는 것)을 통해 접근하는 것이다.³⁷⁾ 여기에서 이미지의 차용은 주로 패러디(parody)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이는 특히 복고성의 개념을 구성하고자 할 때 가장 중요한 기법으로 과거의 친숙한 요소들을 인용하는 것은 충격을 완화하고 아이러니한 대조를 강화시켜 주기 때문³⁸⁾이다.

레트로 디자인은 과거의 화려함을 동경하는 인간의 기본적인 특성에 따라 언제나 존재하던 현상이었으나, 최근들어 정신을 차릴 수 없는 정도의 지나친 문명의 발달은 사람들로 하여금 과거의 여유로움과 풍요로움을 막연하게 그리는 정서의 한 단면으로 볼 수 있다.

자동차에서도 레트로 경향이 두드러지는데, 레트로 디자인에 주로 적용되는 색상은 메탈릭톤과 흙을 연상케하는 황토빛의 매치가 어우러진다. 독일의 폴크스바겐에서 '아즈텍 컬러(Aztec Color)'라는 미래의 색상을 컨셉자동차에 적용하여 발표한 적이 있었다³⁹⁾. Aztec Color는 맑은 하늘을 뜻하는 청색과 기름진 땅을 뜻하는 황색으로서, 오염되지 않은 지구의 색을 표현한 것이다. 지금의 메탈릭톤을 자원을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우리의 의지의 표현이라면 미래의 Aztec Color는 그러한 의지의 결과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본다. 깨끗한 지구를 미래에 다시 보고 싶어하는 대중의 욕구가 레트로 디자인에 담겨있는 것이다.

현대복식의 특징은 다양성이며, 현대복식에 나타난 복고 현상의 특징도 다양하게 나타난다. 현대복식의 유행은 과거에 비해 대중의 동조가 약하다. 즉 한가지 뚜렷한 유행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스타일이 각각 독특한 사이클을 갖고 동시에

한 사회 안에 존재하며, 복고풍의 경우도 여러 시대를 동시에 나타낸다.⁴⁰⁾ 반복되는 복고풍은 빅토리아의 극단에서 아르데코(Art Deco)의 기하학, 구조적인 형태 등 그 범위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그리스, 고딕, 폼페이 적인 것의 재현을 다시 재현시키는 것이다.⁴¹⁾ 복고풍의 역사적 경향은 포스트모던 복식의 초기 단계인 1980년대부터 현대까지 그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⁴²⁾ 또한 오늘날 디자이너들은 "user friendless(사용자에게 친근감을)"라는 컴퓨터광고로부터 빌려 온 개념을 다원주의의 개념 속에서 적용⁴³⁾시키고 있다.

이와 같이 인간 중심적인 시대적 사고를 통해 인간 내면의 진실한 욕구를 표현하도록 하는데 있어서 개인의 표현력 창출에 자유로움과 만족을 주는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는 경향을 '역사적 양식의 하이브리드 패션디자인 경향'이라고 정하고, 현대 패션에서 인지되는 경향을 분석해 본다.

1998년 크리스찬 디올(Christian Dior)의 존 갈리야노(John Galliano)는 <사진 4>에서, 포츨니(Fortuny)가 이오닉 키톤(Ionic Chiton)에서 영감을 받은 작품에 다시 동양적인 프린트를 첨가하여 재형성시켰다. 또한 지오바니 볼디니(Giovanni Boldini)의 친구이자 19세기 초의 오페라 가수 마르치오네 카사티(Marchioness Casati)<사진 5>를 John Galliano는 <사진 6>으로 화려하고 현란한 오페라 무대에 서게 함으로써 시간적인 절대감을 초월하였다. 오래된 그림 속에 있는 인물의 일부를 의도적으로 대조시키기 위해 메탈소재와 화려한 자수 등의 요소들을 밖으로부터 침투시켜 화면 속의 인물을 다른 방법으로 해석하고 있다.

John Galliano는 1998년에 50년대의 '뉴 룩(New Look)'을 현대 감각에 맞게 변형하였다. 어깨는 부드러운 곡선으로 형성시키고, 허리는 하이웨이스트로 하였다. 칼라의 모피 트리밍과 함께 7부 소매(three quarter length)의 메쉬(mesh)소재와 크림 컬러로 이루어진 재킷<사진 7>은 이질적 재료의 병치, 색다른 주제의 전개 등으로 표현시켜 현대적이며 신비스러웠다. 기묘한 변화와 혼합은 예기치 않은 재료로부터 유출되어짐을 보여주고 있다. Christian Dior의 New Look은 John Galliano의 개

인적인 연상에서 유추된 재료와 형태로 표현되어진 John Galliano의 New Look으로, 동심에서부터 형상을 갖추어 나타난 것처럼 예상치 못한 의외의 경이로움을 준다.

콜린 맥도웰(Colin Mcdowell)은 『밀레니엄 모드(Millennium Mode)』에서 "John Galliano는 아름답고 섬세한 복식의 완벽한 요소를 역사의 상자 속에 내버려두지 않았다. 그 요소들이 화려하게 되 돌아올 것을 예측하는 안목을 갖고 있는 진정한 '장인'임을 증명해 오고 있다"⁴⁴⁾고 하여 21세기 패션의 '복고풍'을 예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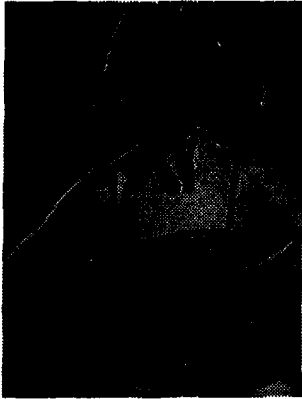
비비안 웨스트우드(Vivienne Westwood)는 1970년대 후반 당시 런던의 주된 스트리트 스타일이 역사적으로 리바이벌된 것들이었고, 아담 안트(Adam Ant)의 뮤직비디오에서는 18세기의 노상강도를 영웅으로 만들었던 것들을 보고 영향을 받아 198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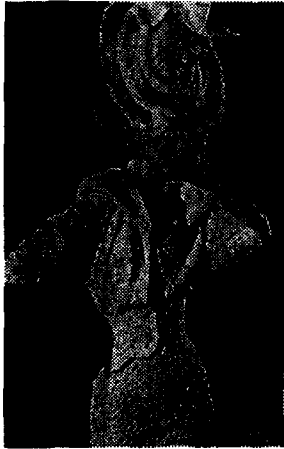
<사진 4> Christian Dior, 'Modain collezioni', No107, 1998, p.198



<사진 5> Giovanni Boldini, 'the Marchioness Casati with Peacock Feathers', 1914, 'Modain collezioni', No.107, 1998, p.198



<사진 6> Christian Dior, 『Modain collezioni』, No.107, 1998, p.198



<사진 7> Christian Dior, 『Modain collezioni』, No.107, 1998, p.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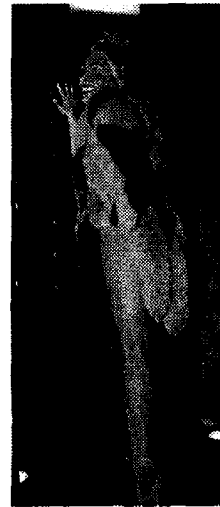
에 '파이어러츠(Pirates) 컬렉션'을 발표⁴⁵⁾하였다. Vivienne Westwood는 "예술은 패러디이다. 그것은 지나간 것을 이용하고 이를 단순화하지만 거기에 어떤 다른 것이 혼합되면 그것은 더욱 흥미로워진다."⁴⁶⁾라고 하면서 진보적인 방법을 통해 역사적 모티브를 이용한 디자인을 계속 발표하고 있다.

Vivienne Westwood의 '97-'98 Paris Collection은 샹젤리제의 리도에서 열었다. 테마는 '5세기전(Five Centuries Ago)'⁴⁷⁾으로 500년전의 패션에서 영감을 얻어 현대의 최신 섹시 모드로 만들었다. <사진 8>은 엘리자베스 1세의 복식에 동물문양의 핸드 프린트 처리가 특징적이다.<사진 9>⁴⁸⁾도 역시 엘리자베

스 여왕을 패러디 한 휘 도란(Fee Doran)의 작품이지만 <사진 8>과는 다르게 해석된 작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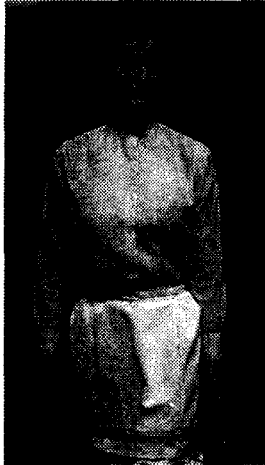
<사진 8> Vivienne Westwood, 'Five Centuries Ago' collection, A/W, 1997, 『Vivienne Westwood』, Thames & Hudson, Westwood, Thames & Hudson, 1997, p.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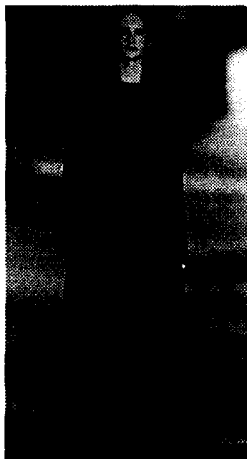
<사진 9> Fee Doran, 『Visionaire's Fashion 2001』, Universe New York, 1999, 'Fee Doran'

이와 같은 디자인 경향은 과거와 현재의 다양한 모티브들을 단편화하여 입체적인 형태를 통한 내적인 분절과 통합개념을 이끌어 낸다. 과거의 디자인의 모티브가 주는 언어는 '고귀함'을 표현하는 것이었으나, 현대에 재현된 디자인의 언어는 고귀한 맥

락과는 무관하게 이질적인 형태와 재료 그리고 여러 구성 원칙이 중첩되어 표현되고 있다.



<사진 10> Robert Cary-Williams 「Modain collezioni」, No.112, Zanfi Editori, 1999, p.136



<사진 11> Dries Van Noten 「Modain collezioni」, No.112, Zanfi Editori, 1999, p.138

새 천년의 스타일은 하이테크놀로지한 소재와 디테일에 의해 해석되어 다양한 표현과 믹스 & 매치 (mix & match)로 조화되어 많은 종류의 복식과 함께 수세기를 통한 여행을 하고 있다. 이것은 현대 여성들이 하이테크 룩을 표현하기 위해 하이테크 스키 마스크에 엘리자베스 프릴이 달린 칼라의 남성복을 입는 이유로 보인다. 역사적 양식을 다시 표

현하려는 태도는 사라지지 않는 과거를 뒤돌아보는 하이브리드적인 태도이다. 예를들어 보면, 현대의 패션은 고딕의 분위기와 80년대에 뉴 웨이브 룩 (New Wave Look)과 섞여서 트위드나 코듀로이 플레이드와 같은 여성스럽고 전통적인 컨추리 드레스의 전형적인 소재들을 과거를 동경하는 목가적인 것으로 물들이고 있다. 또한 디테일 의 한 요소로만 인용이 되었던 역사적인 양식들은 장식적인 모티브와 다이내믹한 스포츠 룩과 함께 섞여서 새롭게 표현되기도 한다<사진 10>.⁴⁹⁾ <사진 11>은 Dries Van Noten의 작품으로 튜닉의 형태와 다른 긴 스커트에 앞에 여밈이 있는 raw-cut의 두꺼운 울 소재의 오버코트로서 과거를 생각하게 하는 블랙과 다크 그레이와 브라운의 어두운 톤에 남성적인 소재로 만들어졌다. 고딕의 어둡고 침침한 분위기를 불러일으키는 컬러로 표현된 작품은 중세의 분위기와 조화된다. 99년 A/W의 트렌드 중 하나인 네오 고딕 스타일의 의상은 다크 어패럴과 함께 도회풍으로 전환되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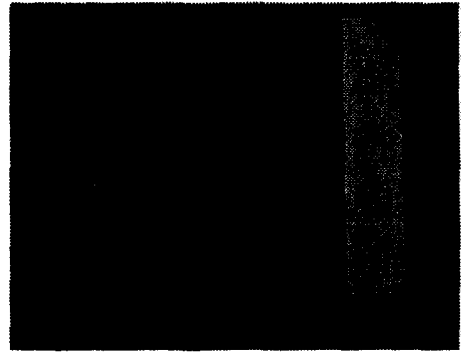
2. 지역적 요소의 하이브리드 패션 디자인 경향 및 분석

정보기술을 통한 정보통신망은 세계를 지구촌이라는 다민족 공동체로 만들고 있다. 현대사회의 동질화, 획일화에서 탈피하고자 하는 포스트모더니즘적 특징인 탈 획일화, 탈 집중화 현상은 다른 문화권에 대한 관심과 함께 각 민족 특유의 민속복식 양식에 대한 관심⁵⁰⁾으로 나타났다. 지구 곳곳의 고유한 민속복식을 현대 패션에 도입하는 다원적인 태도를 갖게된 정보시대의 패션은 국제화의 모습으로 서구문화와 다른 문화에 대한 폭넓은 수용의 태도⁵¹⁾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아시아나 아프리카 혹은 남미의 복식문화에 영향을 받은 민속풍이 후기자본주의시대에 적합한 패션 주제로서 서양 복식문화에 새로운 가치관을 형성하고 있다.⁵²⁾ 에스닉 룩(Ethnic Look)을 일컬을 때 구미를 제외한 제3세계 스타일이나 동양풍을 가리키게 되는데 이것은 기독교 문화권인 서구사회 중심에서 보기 때문이다.⁵³⁾ 서양복을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동양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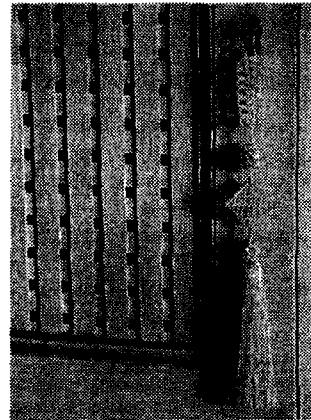
의 패션을 민속풍이라 지칭하게 된다. 그러나 중동을 포함한 아시아의 동양풍 뿐만아니라 유럽 전통 복장의 취향, 남미의 민속풍, 아프리카의 토속적 스타일도 민속풍⁵⁴⁾이라 할 수 있겠다. 서구패션과 제3세계 복식과의 만남은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한 지구 생태학적(ecological) 위기는 서양복식의 인위적이며 건축적인 형에서 벗어나 자연과 고유문화에 대한 노스텔지어(nostalgia)의 표현이라 하겠다. 이는 모더니즘(modernism)의 엘리트주의적이고 배타적인 순수성과 기능주의에 대한 반발로 등장한 포스트모더니즘의 문화적 분위기와 전통주의, 복고주의적인 특성⁵⁵⁾과도 맥을 같이 하고 있다. 또한 다원주의적 사회 흐름에 따른 상대주의적 가치관의 풍토는 주변적인 것으로 치부되던 서유럽 이외의 지역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지각, 가치발전을 가능케 하였으며⁵⁶⁾ 이것은 절대적 이상미에 대한 도전 새로운 미의식의 창조라는 결과를 낳았다.

20세기 과학의 발전과 탈 이념화는 세계의 많은 지역에서 유행의 공유폭을 넓히고 있다. 경제여건의 향상과 정보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서로 다른 문화의 신속한 교류가 가능해 짐에 따라 인류는 하나며 지구촌화라는 세계관이 받아들여지고 있다. 즉, 프레드릭 제임슨(Fredric Jameson)⁵⁷⁾은 다국적 자본주의로 특징 지워진 후기 자본주의가 근대적 시간의 붕괴와 압축에 의해 공간개념의 경계를 흔들었다. 후기자본주의의 발달된 정보망은 공간적 구분을 무너뜨렸고, 다국적 기업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이미지를 제공한다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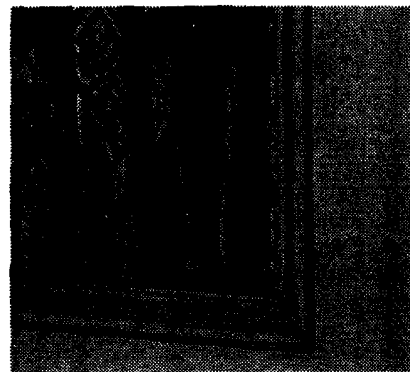
'공유공간'은 건축적 의미로서 경계의 요소들이 함께 상호작용하여 사용되며 건축공간 안에서 인간과 인간, 인간과 공간이 관계를 맺기 위한 공유의 가능성을 제시하는 공간으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그 안에서 사람들이 공유하는 공간은 공감대를 가질 수 있는 정신적 여유를 회복할 수 있다⁵⁸⁾고 설명한다. 따라서 지구촌화란 '전 세계 공유공간'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전 세계 공유공간 속에서 서로 다른 지역의 문화요소를 혼합하여 이루어지는 경향을 '지역적 요소의 하이브리드 경향'이라 정하고 이러한 경향이 패션 디자인에 인지되는 과정을 분석해 본다.



<사진 12> Kelly Hoppen, 『East Meets West』, Conran Octopus, 1997, p.22



<사진 13> Kelly Hoppen, 『East Meets West』, Conran Octopus, 1997, p.22



<사진 14> Kelly Hoppen, 『East Meets West』, Conran Octopus, 1997, p.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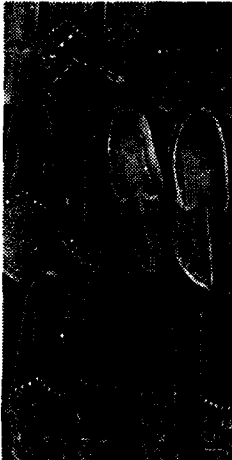
일본의 격자 문양의 창 장식<사진 12>는 슬라이

트된 나무<사진 13>나 금속 페인트로 채색한 부드러운 와이어<사진 14>과 같이 디자인을 하는 등 아이디어를 변화시킬 수 있다. 이러한 아이디어로 St. Mark의 스퀘어의 아치 스타일, 베니스의 아치, 세빌라의 전통적인 아치 천정에서 힌트를 얻어 빅토리아풍의 계단에 켈리 호펜(Kelly Hoppen)에 의해 재창조되었다.⁵⁹⁾ 이것은 이국적인 터치의 창 장식 이 디자인되는 과정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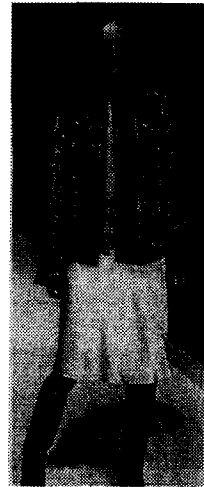
동서양의 만남으로 이루어지는 스타일은 풍부한 자수와 단순하면서도 엄격함을 갖는 다채로운 색상이 특징이다. <사진 15>의 저채도의 스칼렛과 핑크 자수의 인도산 슬리퍼가 주는 아이디어로서, Kell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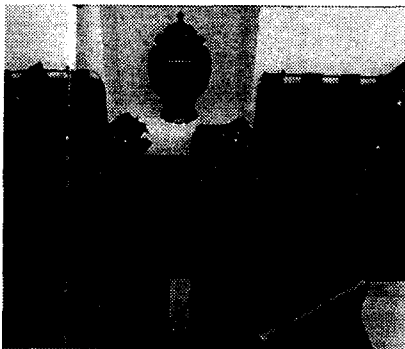
<사진 17> 몽골의 전통 의상, 『MONGOLIA-96 KOREA EXHIBITION』, P.132



<사진 15> Kelly Hoppen, 『East Meets West』, Conran Octopus, 1997, p.52』



<사진 18> Etro, 『Fashion News』, Vol.62, 2000.5, p.156



<사진 16> Kelly Hoppen, 『East Meets West』, Conran Octopus, 1997, p.53

Hoppen은 중국풍의 레드와 블랙으로 이루어지는 거실재료로 도입되었다<사진 16>. 문직과 벨벳 소재는 쿠션과 실내장식품으로 이용되고, 소파의 실크와 벨벳 스트라이프가 주는 양각의 패턴은 광택의 나무 박스들과 드라마틱한 소재의 대조를 이룬다. 이 작품의 테마는 'Ruthlessly Governed'로서, Kelly Hoppen은 이 작품에서 레드와 블랙의 두 가지 컬러, 라운드와 스퀘어의 두 가지 형태, 그리고 플로랄과 스트라이프의 두 가지 패턴만 사용하여

화려함을 창조⁶⁰⁾하였다.

'유목민'을 테마로 한 Etro의 '97-'98 Milano Collection에서는, 아름다운 광택과 색을 표현할 수 있는 벨루어나 씨실 과 날실을 다른 빛깔로 짠 일본의 옷감 타마무시(玉蟲) 또는 오리엔탈의 모티브가 직조되어 있는 견직물 등 고급의 소재를 사용하였다. Etro는 2000-2001 Autumn & Winter Milan Collection⁶¹⁾(사진 18)에서도 히말라야의 느낌의 민족적 모티브(사진 17)의 티벳 자수로 된 만다린 재킷과 사탕의 롱부츠로 악센트를 보이고 있다. 광택이 풍부한 벨루어의 부드러운 소재와 화려한 자수의 병치, 직설적으로 인용한 고전 모티브와 하이테크한 이미지는 전체 속에서 억제된 표현으로 나타난다. 벨루어의 광택소재와 화려한 자수 트리밍의 혼합은 직설적으로 차용한 몽골 전통의상의 모티브와 함께 새롭게 결합되어 보여지고 있다.

Dior의 Pr ss Kit(사진 19)와 Christian Dior의 '97-'98 A/W Paris Collection의 작품(사진 20)을 보면, 창녀풍의 머리형과 Dior의 고급스러운 실크 새틴의 미스 매치가 높은 폼프스 샌달과 함께 묘하게 애교가 있어 보인다. 지역적인 요소들이 각각의 독자성을 잃지 않고서도 서로 관련되어지는 것처럼 표현될 수 있는 것은 다원주의에 대한 해석으로 설명될 수 있겠다.

1998년의 패션 경향은 바틱과 폴리네시아의 텍스 타일로서 풍부한 오리엔탈 로브, 자연의 소재, 매혹적인 자수 그리고 꽃무늬 모티브를 이용한 패션으로 표현된다.⁶²⁾ <사진 21>는 1998년 Dries Van Noten의 테마인 '별난 세계로의 여행'을 표현한 사진으로, <사진 22>에서 이국풍을 느낄 수 있다. 오리엔탈 요소로 진주자수 처리를 한 술장식의 실크 스카프와 함께 양식화된 꽃들이 표현된 화이트슬립 드레스는 세련된 스타일을 보여준다. 검은 피부의 사람들이 흰색 티셔츠를 입고 춤을 추는 형상은,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는 황금색의 실크 스카프와 작은 플로랄 패턴의 슬립 드레스와 함께 대조적인 테마의 조합을 보여준다. 이것은 쾌락적인 분위기와 함께 오리엔탈리즘의 하이브리드적인 느낌을 준다.

<사진 23>은 Jean Paul Gaultier의 2000 S/S Paris Haute Couture의 작품이다. 이번 컬렉션은

'Jean Paul Gaultier가 방문한 인도'를 표현했다.⁶³⁾ 컬러풀한 터번(turban)은 인디아의 무드를 실감나게 했고 목에서 어깨에 이르기까지 길게 늘어뜨린 섬세한 은세공의 장신구가 화려한 트리밍의 머메이드 스커트와 함께 완성도를 높여 주었다.

디자이너들은 영감을 얻기 위해 인도의 풍부한 미학적 유산에 눈을 돌리고 있으며, 사리 실크에서 느껴지는 관능미, 인도 여인의 우아함 그리고 충격적인 콤비네이션의 빛깔들이 뿜어내는 매력에서 전율감을 느낀다.⁶⁴⁾ '인도'라는 테마가 여러 나라와 여러 문화의 하이브리드를 표현하는 것이다. 흙탕물의 갠지즈와 극심한 빈곤 너머에 고상한 철학과 정신적인 부가 살아 숨쉬는 곳이며, 느낌의 미학을 찾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인도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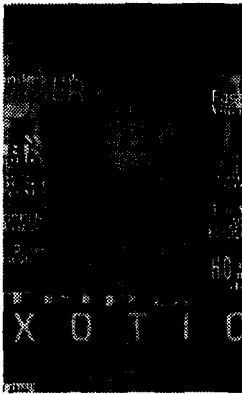
<사진 19> Dior의 Pr ss Kit, '97-'98 A/W Paris Collection, 'Mode et Mode', No.299,  T  97, p.1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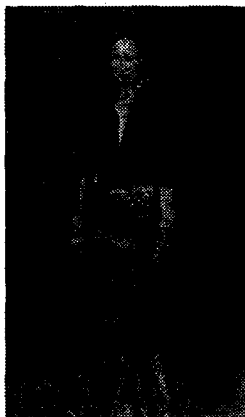
<사진 20> '97-'98 A/W Paris Collection, 'Mode et Mode', No.299,  T  97, p.168



<사진 21> Ph. G. Giannoni, 'A Trip to Exotica', 'Modain Collection', No.107, 1998, p.50



<사진 22> Dries Van Noten, 'Modain Collection', No.107, 1998, 표지



<사진 23> Jean Paul Gaultier, 2000 S/S Paris Haute Couture, 'Collection', Vol.26, Gap Japan Co., Ltd., 2000, p.17

<사진 24>은 2000년 진태욱의 작품으로, 1999년 진태욱 컬렉션에서 인상적이었던 활옷 드레스를 새롭게 표현한 레이어드 룩이다.⁶⁵⁾ 한복의 치마와 같은 과장된 패딩 스커트와 메탈을 꼬아서 여며 입는 가죽 소재의 슬리브리스 재킷과 활옷의 수를 놓은 슬리브리스 재킷은 한국여인이 뿌리를 찾아서 오는 편안한 느낌을 전해준다.



<사진 24> 진태욱, 'ELLE Korea', 한국종합미디어, 2000.11, p.282

3. 문화적 관점의 하이브리드 패션 디자인 경향 및 분석

정보, 컴퓨터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혁명으로 대표되는 오늘날의 사회변동은 그 추동력으로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가 작용하고있다는 점에서 인류 역사의 이전 어느 단계와도 확연히 구별된다. 극소 전자기술과 정보 기술의 발전에 힘입은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의 급속한 발전은 정보 처리 능력을 배가시키고 정보처리방식을 배가시켰을 뿐만 아니라 사회구조의 질적인 변동마저 가져오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⁶⁶⁾ 특히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는 우리시대의 '문화적 전환(culture turn)'을 이끌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미디어, 정보기술, 문화산업 등의 발전에 힘입어 문화적 영역이 사회적 삶의 중심을 이루며 그

에 수반하여 정체성 형성에도 문화적 경험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오늘날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의 발전은 단순한 기술적 영역의 변화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커뮤니케이션 행위자체와 정보에 대한 관념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⁶⁷⁾ 커뮤니케이션 매체는 그 기능에 따라 서로 분리되어 서로 다른 네트워크 및 서로 다른 플랫폼을 사용해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의 혁신으로 모든 서비스를 같은 네트워크로 통합된 기기를 사용해 전달 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 방송산업, 컴퓨터 산업, 통신산업은 상호 융합함으로써 고유의 영역을 넘어서고 있으며 최근에는 특히 인터넷을 중심으로 각 산업부문이 융합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⁶⁸⁾

이와 같은 현상을 “인간의 탐구과정과 혁신 결과에 대한 순기능과 역기능이 조정되면서 다른 분야와의 사회적 상호관계가 설립되고 인본주의에 입각한 창조정신, 합리주의, 능률중심 등 과학정신이 조직 원리화, 생활규범, 사회가치의 준거로 공유화, 집단화됨으로써 하나의 유형 및 틀로서 정형화되는 문화체계, 즉 과학기술 문화”로 정의⁶⁹⁾하고 있다. 과학기술 문화재단은 “일정한 세계관, 철학, 신념으로 대표되는 공리와 사회적 가치, 사회적 이익, 과학기술지향의 목적, 그리고 이를 구현하는 수단으로서 규범, 규칙, 사회적 기술을 정형화해 나가는 것”으로 정의⁷⁰⁾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문화적 환경의 변화는 패션의 문화 영역에서도 나타난다.

1990년대에는 패션의 여러 가지 다양한 요소들 간의 조합이나 절충을 통하여 새로운 스타일들이 혼재했으며, 장르간의 붕괴의 영향으로 전통질서와 상반되는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고 있다.⁷¹⁾ 1980년대 이후 새로운 시대사조로 나타난 사회와 문화 안에서 표면화되기 시작한 포스트모던 문화⁷²⁾의 특성으로 두드러진 것은 대중매체에 의해 양산되는 무수한 이미지의 생산과 부조화의 조화⁷³⁾로 설명된다. Fredric Jameson은 오늘날의 예술가와 작가들은 더 이상 새로운 세계와 스타일을 만들 수 없게 되었고 제한된 숫자의 조합만이 가능하다고 한다. 또한 스타일의 개혁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은 세계에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패스티쉬(pastiche : 혼성, 모방)’⁷⁴⁾뿐이라고 제시한다. 이것은 주체 자체의 죽음이 중심화된 주체나 심리에 대한 탈 중심화를 야기시키며, 이는 독특한 양식의 모더니즘이 소멸되고 스타일상의 개혁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게 됨을 의미한다⁷⁵⁾고 주장하는 것이다. 탈 중심화는 해체주의에서 근원을 찾을 수 있다. 서구의 형이상학은 중심의 현존을 주장하기 위해 말/글, 선/악, 이성/광기, 존재/부재, 내부/외부, 의식/무의식, 문명/야만, 중심/주변 등의 이분법적 대립함을 만들어 선행하는 것이 우위에 속할 뿐 아니라 로고스적이며 보다 고차원적인 것으로 간주했다.⁷⁶⁾ 프랑스의 철학자 자크 데리다(J. Derrida)는 이 모든 이항대립적 요소들이 서로 배타적이고 상충적이기보다는 서로 대체될 수 있고 보충될 수 있는 ‘상호보충적’인 존재라는 인식을 토대로 그 두 요소사이의 자유로운 전환을 허용하여 해체작업을 시도하였다.⁷⁷⁾ J. Derrida의 해체이론은 닫힌 체계에 대한 저항이며, 동시에 불안정과 무질서를 있는 그대로 포용하며 다양성과 열림을 추구하는 지적 탐색이라⁷⁸⁾ 하겠다. J. Derrida에 의해 개념화된 해체주의 철학에 비추어 보면 해체란 어떠한 사물의 은유적 유형이 아니다. 해체와 디자인 사이의 관계는 특정한 디자인 사고 내에서 발생하며 원칙적으로 이는 어떠한 규범적 관습과 지배적 개념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⁷⁹⁾ 해체주의의 개념적 특성은 ‘인용’, ‘텍스트와 글쓰기’, ‘차연’, ‘보충’, ‘혼적’, ‘현존과 부재’, ‘상호텍스트성’ 등을 들 수 있으며, 이 개념들은 독립적으로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연쇄고리적으로 적용되고 있다.⁸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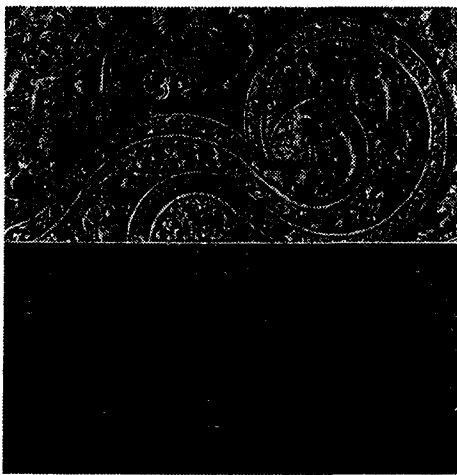
이와 같이 사회문화적인 경계를 초월하여 과학기술 문화를 배경으로 하여 나타나는 현상을 ‘문화적 관점의 하이브리드 경향’이라 정하고, 문화적 관점의 하이브리드 패션디자인 경향이 현대 정보사회인에게 나타나는 과정을 분석해 본다.

『크로스-컬처 디자인(Cross-Cultural Design)』의 저자인 헨리 스타이너(Henry Steiner)의 1989년 작품 ‘Self Portrait’(사진 25)는 존 톰슨(John Thomson)이 홍콩에서 일하면서 찍었던 사진 위에 네 가지의 다른 디자인들을 덧입혀 Cross-Cultural

Design을 만든 것이다. 하나는, 1980년 「Idea」 잡지의 표지디자인으로 중국의 경극의 화장법을 인용하여 아시아에서 근무하는 서구인으로, 공적인 일을 수행하는 디자이너라는 의미를 부여한 작품⁸¹⁾이라고 한다. 또 하나는 1986년의 'Sequences'라는 테마의 포스터인 'Chopstic'으로, 1에서 4까지의 중국의 숫자를 바탕으로 하여 젓가락사용의 방법으로 네 단계로 표현하였다. 레드, 화이트, 옐로우, 블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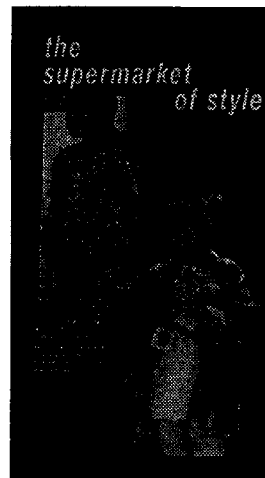
<사진 25> 'Self Portrait', 『Cross-Cultural Design』, Thames & Hudson, 1995, p.11



<사진 26> 'Centuries Old Traditional/State of the Art Technology' 『Cross-Cultural Design』, Thames & Hudson, 1995, p.131

과 골드는 전형적인 차이나타운의 컬러이다. 또 다른 하나는 홍콩의 뮤직 페스티벌 포스터이다. 두 개의 귀는 나비의 날개를 의미하고 귀걸이는 '오리엔트의 진주(Pearl of the Orient)'인 홍콩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1980년 'annual report'의 표지이다. 뉴욕 은행의 자본유치를 동양의 진주인 홍콩과 사과의 만남으로 표현하였다.

<사진 26>은 항공회사 타이(Thai)의 로고 캠페인으로 'Centuries Old Traditional/State of the Art Technology'라는 작품이다. 이 작품은 전통적인 타일랜드의 문화와 함께 하이테크놀로지로부터 창출되는 보다는 서비스의 가치를 광고하는 것이다. 윗부분은 전통적인 것을 표현하는 형태이고, 아랫부분은 하이테크놀로지를 상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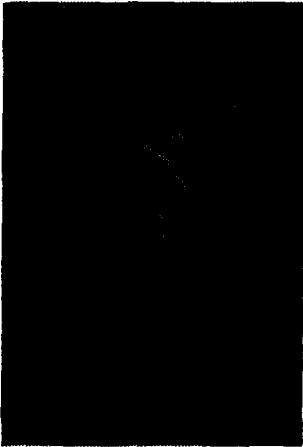


<사진 27> The supermarket of style, Ted Polhemus, 『Street Style』, Thames and Hudson, 1994, p.134

테드 폴헤무스(Ted Polhemus)는 포스트 모던 시대에 가능한 모든 스트리트 스타일(street style)의 문화가 이용되고 있으며, 이런 뒤범벅이 된 혼합을 '스트리트 스타일 슈퍼마켓(street style supermarket)'으로 설명했다<사진 27>. 들체 앤 가바나(Dolce & Gabbana)의 Spring/Summer 1993 Collection작품⁸²⁾에서, 비즈, 패치워크 플레이즈, 프릴 장식의 숄, 느슨한 모자의 히피스타일로 Dolce & Gabbana의 패션쇼를 변화시켰다. 스타일의 슈퍼마켓 경향은 디자인 구성상 획일성을 피하고 새롭고 독창적인 연출

이미지로 자유로움을 택하면서 고전적인 디자인의 요소와 모더니즘의 결합이 하이브리드적 디자인의 연출을 나타낸다. 시각적인 장애요소가 될 수 있는 디자인의 아이템을 장식적인 디자인 요소로 활용한다. 그 장식적인 요소들은 입체감을 나타내며 해체적이고 변형작용(metamorphosis)을 형성한다고 할 수 있다.

현대패션에서 중요한 아이템 중의 하나는 '힙 파우치(hip pouch)'이다. Chanel의 1999년 작품<사진 28>는 이번 시즌에 새롭게 등장한 납작한 가방 'body bag'으로 의복과 같은 소재로 만들어 조화시



<사진 28> Chanel, 'Body Bags', 『Modain Collezioni』, No.112, 1999, p.143



<사진 29> PRADA의 바위타기용 신발과 캐주얼 슈즈의 하이브리드 슈즈,
<http://user.chollian.net/~fin10/fin/fin9403.htm>



<사진 30> 'Keuper/Van Benthum' 『Visionaire's Fashion 2001』, Universe:New York, 1999, 'Keuper/Van Benthum'



<사진 31> Klavers 『Visionaire's Fashion 2001』, Universe:New York, 1999, 'Klavers'

키기도 한다.⁸³⁾ 가장 전형적인 형태는 한쪽 어깨에서 목을 둘러 다른 쪽 어깨로 비스듬히 둘러 매는 것이다. 이것은 '주머니'라는 아이템을 가방으로 차연하여 그 의미를 확대한 예라고 할 수 있다.

<사진 29>은 프라다(PRADA)의 바위타기용 신발과 캐주얼 슈즈의 하이브리드 슈즈이다. 미끄러지지 않도록 편안한 고무밑창과 조임고리가 특징이다. 작은 백을 종아리에 걸어서 유행 아이템과의 조화를 보여준다. 남성용 정장 신발에서 유래한 옥스포드와 운동화의 헤르메스(HERMES) 하이브리드

슈즈는 정장이나 캐주얼 어느 스타일의 패션에도 조화가 가능하다. 특히 클래식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싶을 때는 더욱 멋스러운 분위기를 표현해 줄 수 있다. 두 가지 이상의 기능의 혼합으로 다른 아이템과 조화가 가능한 재료를 모티브로 삼았다. 각각의 아이템은 각각의 기능을 영위하며 하나의 구성 속에서 또 다른 구성을 연출함으로써 새로운 조화를 이끌어낸다.

<사진 30>는 Michiel Keuper와 Francisco Van Benthum의 작품이다. 그들은 실제로 생산된 것 뿐만 아니라 그들의 상상속에 있는 작품들은 'prades'라는 언어로 설명한다. 어깨에 콩 모양을 짝트게 한 상의는 코트와 상충된다. 우스꽝스러운 남자의 수트는 킷트조각, 바지, 스커트의 파편조각들과 조화를 이룬다. Michiel Keuper와 Francisco Van Benthum은 아이템 파편의 구조, 시대에 유행하는 의상들을 변화하도록 하는 합성화가 Michiel Keuper와 Francisco Van Benthum이 표현하려는 것이며 그들의 작품의 이해를 가능하게 해 주는 것⁸⁴⁾이라고 한다. Michiel Keuper와 Francisco Van Benthum의 패션쇼를 보는 관중들은 관중들 앞에서 보여지는 패션쇼의 내용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미리 상황을 예측할 수 있는 것들에 익숙해져 있다. 패션쇼에 등장하는 모델이 걸어 나왔다가 돌아서는 순간 모델이 입고 있는 의상은 관중들이 상상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피상적인 것에 불과하다. Michiel Keuper와 Francisco Van Benthum은 1998년 그들의 컬렉션을 'Evil Wrapped in Beauty'라고 표현했다. 급진적인 디자이너인 Maria Cornejo도 사람들은 그들의 가치관을 갖고 스토어에 들어와서 의상을 이해하게 되고, 또 유행선도자들은 의상을 그들의 취향에 맞게 그들의 방법대로 입는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에게 입는 방법을 설명해 주어도 설명해준 방법대로 입지 않는다⁸⁵⁾고 한다.

독일의 디자이너 Niels Klavers는 4개의 슬리브가 부착된 재킷을 디자인했다. 그는 또한 3개의 다리가 부착된 바지<사진 31>, 슬리브가 4개인 셔츠, 그리고 2개의 동일한 코트 드레스에 의해 하나의 종속된 코트 드레스를 창조했다. 그는 매우 신중하게 작업을 한다. Klavers의 입는 방식은 아래로 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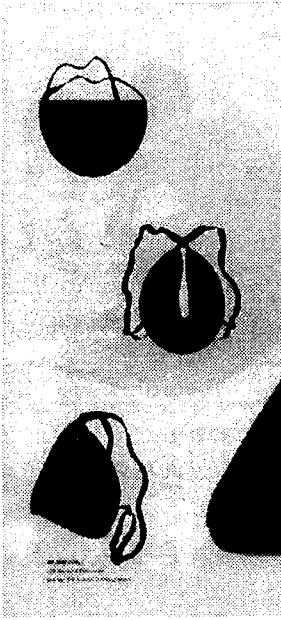
기도 하고 옆으로 입기도 하여 익숙해져 있는 매너리즘에서 숨겨져 있는 또 다른 차원을 부여하는 것이다. 1998년 Klavers의 첫 번째 컬렉션은 'Show Me Your Second Face'였다. Klavers는 형태의 중첩이나 이 효과를 위한 중첩의 부가물이라 칭하여 그의 컬렉션을 설명했다⁸⁶⁾고 한다.

위의 작품들은 기하학적 형태의 오브제로서의 아이템과 그것들의 구성체계를 통한 디자인 공간 구성의 실험적인 형태이다. 선·면·공간구성에 대한 해석은 구성주의적 변형과 해체주의적 흐름으로 설명된다. 기존의 입는 방식으로부터의 이탈, 왜곡, 변형된 패턴이나 여밈, 중심의 이동 등의 장식적 파편들은 그 흐름을 보여준다. 디자인 공간구성에 흩어져있는 각 요소들이 무질서 속에 서로의 연결을 통한 흐름을 가지며 컬러는 총체적 질서유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사진 32>은 후세인 살라얀(Hussein Chalayan)의 2000년 A/W London Collection 작품이다. 그의 패션쇼는 놀라움의 세계였다. 4명의 모델들이 슬립 드레스차림으로 무대로 걸어나와 4개의 의자 옆에 섰다. 곧 회색 체크 의자 커버는 붉은 색과 조화된 드레스 4벌로 멋지게 탈바꿈되어 모델들에게 입혀졌다. 남아있던 나무 골격의자는 몇 번의 손놀림으로 각기 다른 디자인의 멋진 여행가방으로 둔갑했다. 또한 다른 모델이 무대로 걸어나와 테이블의 가운데 뚜껑을 열고 테이블 중앙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손잡이를 올리니까 둥근 탑 모양의 스커트가 되었다. 마치 유목민이 유르트를 접어서 언제나 휴대



<사진 32> Hussein Chalayan, 「VOGUE Korea」, 2000년 4월호 부록



<사진 33> Naoko Hirota, 「산업디자인」, No.170, 산업디자인진흥원, 2000+5.6, p.20

할 수 있는 있도록 하는 것처럼 4개의 의자와 테이블은 휴대 간편한 가방과 스커트로 변형되었다.

<사진 33>은 일본의 제품디자이너 나오코 히로타(Naoko Hirota)의 1999년 전시이다. Naoko Hirota는 새로운 유희빌리티의 구현과 새로운 스타일을 디자인하는 것, 두 가지 카테고리를 나뉘게 정립해 왔으며 각각의 카테고리가 갖는 서로 다른 특징과 느낌을 혼합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고 주장한다. Naoko Hirota의 작품이 갖는 가장 주된 특징은 고전적이고 자연스러운 스타일을 견지하고 있으며 사용자에게 편리함을 제공할 수 있도록 기능을 보강한 점이다. 양 측면에 지퍼가 달려 있기 때문에 가방을 어깨에 맨 상태로 물건을 꺼내는 것이 가능한 '더블 zip(double zip)'가방, 비록 하나의 끈으로 되었지만 어깨에 밀착되기 때문에 흘러내릴 염려가 없는 외출 가방. 원래는 반달 모양의 백이지만 양쪽 어깨에 멜 때는 끈을 교차해서 중국과자(fortune cookie: 예언의 쪽지가 들어 있는 과자)모양이 되는 가방 등 색다른 형태만큼 활용 방법 또한 다양하다.⁸⁷⁾



<사진 34> Maria Blaisse 'Moving Back', 1996, 『Techno Textiles』, Thames & Hudson, 1998, p.22

<사진 34>은 마리아 블레이스(Maria Blaisse)의 1996년 작품 'Moving Back'이다. 이 작품의 재료인 '합성 foam'은 몸의 움직임에 따라 그것을 인식하는 새로운 물질이다. Susan Rethorst가 안무를 맡고 무용 프로덕션 Kuma guna를 위한 이 의상들은 Amsterdam에서 공연했던 작품이다. 소재는 산업 closed-cell foam으로 진공형태로 만들어졌다. 단순한 구형의 foam 3차원적인 오목볼록한 요소들은 인



<사진 35> Desirée Heiss and Inez Kaag, 『Visionaire's Fashion 2001』, Universe:New York, 1999, 'Desirée Heiss and Inez Kaag'

간의 몸과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다.⁸⁸⁾

<사진 35>는 Desirée Heiss and Inez Kaag의 작품으로, 그들은 독창적이고 상호작용적이며 다목적인 프로덕츠를 'stylefree'라고 부른다. 다시말해서 탈 대중적이고 숨겨진 재미가 있는 작품을 이렇게 부르는 것이다. 자신들의 작품에는 그들의 정신성으로부터 자유를 앗아가는 옷, 마음이 없는 옷, 그리고 라벨뿐인 옷에 새로움을 불어 넣으려한다⁸⁹⁾고 한다.

프랑스의 디자이너 Fred Sathal은 여행에서 얻은 느낌들-urban nomad, sophisticated primitive, animal androgyny-을 패션언어로 말한다. 그녀는 세계적인 패션 브랜드의 강박관념에서 벗어나 다양한 룩을 표현하려고 한다. 다소 신비스러운 시적인 컬렉션의 테마-1995년 10월 'Metamorphoses Articlees', 1997년 10월 'Instinct Genetique', 1998년 10월 'Anatomie Intuitive' 그리고 1999년에는 '24Degrees Celsius'-에서는 하이테크놀로지의 대조와 함께 융합된 구조적인 형태로 재미를 부여한다⁹⁰⁾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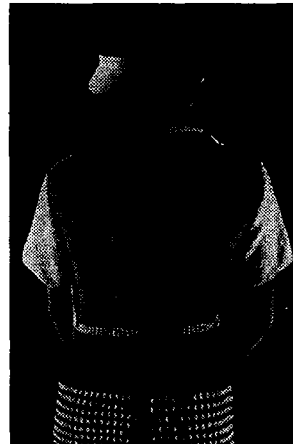
<사진 36>은 Kenzo의 1998년 Spring/Summer Collection 작품이다.⁹¹⁾ 셔츠와 브이 넥(v-neck) 풀오버(pullover) 위에 리넨 혼방의 재킷을 입고, 몸에 맞는 바지 위에 면 사롱(sarong)을 긴 실크 스카프와 함께 조화시킨 하이브리드 패션이다. Kenzo의 작품에 담겨진 변신의 가능성은 새로움에 대한 도전적 이미지를 유출해 내고 그것을 디자인 공간에서 감각적, 개성적 이미지로 나타낸다. 각 요소들의 혼합적 결합은 작품이미지에 대한 지속적인 도전을 의미하며 새로움을 찾으려는 의도이다. 선의 변화는 곧은 직선과 험 라인의 불규칙한 지그재그 선과의 대비이며, 장식적인 소품들이 절대적인 요소로 상관관계를 나타내며 사용되고 있다.

<사진 37>는 '둘을 위한 큰 옷(Une Grande - robe pour Deux)'이란 '앤드로지니(Androgyny)' 테마의 컬렉션 광고이다. Jean Paul Gaultier는 통상적인 개념에서 벗어나 실험적 공간을 보여준다. 남성성과 여성성이라는 이미지와 소재 그리고 색채에서 보여주는 대조와 대비, 다른 듯하지만 같은 느낌을 주는 조화는 변화와 혼재된 표현 방법을 취하고 있

다. 블랙의 무기질 공간과 유기적 관계를 이루는 대상들, 시각적 텍스추어와 촉각적 텍스추어의 변화, 지그재그 선으로 형성된 시선방향의 다양한 효과는 시각을 연속적으로 이동시키는 실험적인 디자인 공간을 창조하고 있다.



<사진 36> Kenzo, Linen, Cotton and silk for this hybrid outfit, S/S, 1998 collection, 『Kenzo』, Thames & Hudson, 1998, p.61



<사진 37> Jean Paul Gaultier, 'Androgyny', S/S, 1985, 『Jean Paul Gaultier』, Thames & Hudson, 1998, p.18

IV. 결 론

다양한 예술 양식의 혼재 경향을 보이는 21세기의 현대 패션이 어떠한 하나의 양식을 중심으로 하는 관점으로는 설명될 수 없다는 것으로 이해하여, 21세기 사회·문화적 현상인 정보사회 형성과정과 관련하여 '하이브리드 패션 디자인 경향'이라 정하고 정보사회의 특징이 특정한 경계를 넘어서는 다양한 장르의 혼합 및 붕괴의 복합적인 디지털 사회 현상으로 형성되어 현대 패션 디자인에서 보여지는 경향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간 중심적인 시대적 사고를 통해 인간 내면의 진실한 욕구를 표현하도록 하는데 있어서 개인의 표현력 창출에 자유로움과 만족을 주는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는 '역사적 양식의 하이브리드 패션디자인 경향'은 과거와 현재의 다양한 모티브들을 단편화하여 입체적인 형태를 통한 내적인 분절과 통합개념을 이끌어 내게 된다. 과거의 디자인의 모티브가 주는 언어는 '고귀함'을 표현하는 것이었으나, 현대에 재현된 디자인의 언어는 고귀한 맥락과는 무관하게 이질적인 형태와 재료 그리고 여러 구성 원칙이 중첩되어 표현되고 있다. 현대패션은 하이테크놀로지한 소재와 디테일에 의해 해석되어 다양한 표현과 믹스 & 매치(mix & match)로 조화되어 많은 종류의 복식과 함께 표현되었다.

둘째, 현대 정보사회의 과학기술로 이루어진 전세계의 네트워크화로 인하여 다양한 지역문화의 자극과 접촉으로 형성되는 지역적 요소의 하이브리드 패션 디자인의 경향은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뉴미디어-에 의해 창출된 문화를 바탕으로 하여 기존의 문화에서 관습처럼 굳어져 왔던 다양한 경계들이 붕괴되었으며 지역적인 요소들이 각각의 독자성을 잃지 않고서도 서로 관련되어지는 것처럼 표현될 수 있었던 것은 다원주의에 대한 해석으로 설명될 수 있었다.

셋째, 사회문화적인 경계를 초월하여 과학기술 문화를 배경으로 하여 나타나는 '문화적 관점의 하이브리드 패션 디자인 경향'은 다른 형태들과의 전환적 상호관계 및 내부의 프로그램의 변화를 통해 불완전한 의미를 보충해 갔으며, '다중시점의 표현'

의 적용으로 각각 문화적 요소들이 해체되고 재조립됨으로써 중층적이고 다면체적인 특성을 보여주었다. 또한 탈 중심적 특성으로서 주체의 시각에 중점을 두지 않고 가능한 모든 인지태도를 수용하는 방법으로도 설명될 수 있었다. 디자인 구성방법은 외부로부터의 파괴가 아니라 내부의 근본적 해체를 통한 불안정과 무질서를 그대로 포용하고 다양성과 열렬함을 추구하여 설계과정의 역을 취하는 방법으로 표현되었고, 불연속적 표현으로 혼합, 중첩, 왜곡, 삽입, 우연의 구성을 통해 연속성을 해체하였다.

참 고 문 헌

- 1) 엄소희, "현대 복식에 표출된 아방가르드 의미의 패러다임적 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8
- 2) 양숙희, "20세기 후반 패션에 나타난 절충주의적 경향", 숙명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 3) 이정후, "포스트모더니즘 패션에 나타난 불확정성", 숙명여자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8,
- 4) 이춘희, "현대복식이 반영된 동양적 이미지의 기호학적 분석", 중앙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9년
- 5) 하이브리드란 잡종, 혼성물의 뜻으로서 유기물과 무기물의 구분을 뛰어넘는 새로운 영역의 소재인 원자, 분자 레벨에서 두 종류 이상의 원소간 화학결합을 인공적으로 제어하여 만든다. 유망품목으로는 분자에 정보를 기억시킨 초고밀도 분자메모리, 이온 및 생리 활성 물질의 출입을 전기로도 제어하는 분리막, 실온에서 초전도를 나타내는 하이브리드 초전도체, 입체적 구조를 갖는 3차원 IC 등이다.
John Naisbitt, 박동진 옮김, 앞의 책, p.147
- 6) Jacques Attali, 앞의 책, p.68
- 7) 강종봉, 조범래, 이수영, "SiC/Si3N4 하이브리드 복합체의 제조 및 특성", 「한국재료학회지」, Vol.6, NO.4, 1996, p.428-435
- 8) 최영락, 안진용, 안주삼, 백동규, 최승철, "마이크로파 하이브리드 소결법에 의한 NTC 서미스터의 제조", The Journal of Korea Association of Crystal Growth, Vol.8, NO.3, 1998, p.508-512
- 9) 김준경, 「고분자 하이브리드 연구센터(Polymer Hybrid Research Center) KIST 홈페이지, <http://webhost.kist.re.kr/teams/kist/korean/research/research-a3.html>
- 10) 'Business Structure/ Streetzine.com -Korea', <http://www.streetzine.com/company/struc.htm>

- 11) David Skyrme, 'The Hybrid Manager', <http://www.skyrme.com/insights/6hybrid.htm>
- 12) 권오영, "제품혁신을 위한 하이브리드 접근법", 「Prime Business Report」, 현대경제 연구원, 74호 (1), 1999.8.4. p.1
- 13) 권오영, 앞의 글, p.2
- 14) 'about HYBRIDCARD' <http://www.hybridcard.com/product.html>
- 15) 박홍·윤도근, "현대건축과 실내디자인의 혼성적 표현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7권, 5호, 통권 37호, 대한건축학회, 1991.10. p.84
- 16) 박홍·윤도식, 앞의 글, p.85
- 17) 박홍·윤도식, 앞의 글, p.83
- 18) 이일형, "현대건축의 혼성적 경향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1권 1호, 통권 75호, 대한건축학회, 1995.1. p.35-36
- 19) Heinrich Klotz, 양동양 역, 『현대건축론』, 기문당, 1991. p.16
- 20) 이일형, 앞의 글, p.37
- 21) 정홍숙, 정현숙, "포스트 모던 패션에 표현된 페미니즘 연구", 「복식」, 35호, 한국복식학회, 1997.11. p.231
- 22) 박명희, "1980년대 현대 패션에 나타난 포스트모더니즘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1. p.5
- 23) John A Walker, 정진국 역, 『대중 매체 시대의 예술』, 열화당, 1997. p.104
- 24) 「예술세계」, 1992년1월, p.36
- 25) 김영옥, 김인숙, "현대복식에 나타난 양면감정", 「복식」, Vol.50, No.1, 한국복식학회, 2000.1. p.103
- 26) 안상수, "왜 어울림인가?", 2000년 세계그래픽디자인대회 초청장, 2000.1.28
- 27) "2000년 세계그래픽디자인대회 집행위원장 안상수 인터뷰-거울, 창문 그리고 마당", Icograda Oullim 2000 News, 2000.6.15. p.6-7
- 28) 정홍숙, 정현숙, 앞의 글, p.237
- 29) 김민자, "20세기패션에 나타난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한 연구(II)-반미학, 열린패션을 중심으로-", 「복식」, Vol.38, 한국복식학회, 1998. p.380
- 30) 문화와 사회 연구회, 『현대와 탈 현대』, 사회문화연구소, 1994. p.139
- 31) 라사라 교육개발원 편, 『복식사전』, 라사라, 1992. p.369
- 32) David Harvey, 구동희, 박영민 역, 『포스트모더니티의 조건』, 한울, 1996. p.354-357
- 33) 김미자, 양학미, "후기 자본주의 사회의 패션에 나타난 혼성 모방", 「복식」, Vol.50, No.1, 한국복식학회, 2000.1. p.81
- 34) 정홍숙, "포스트모던 복식의 복고성에 관한 연구", 「복식」, Vol.25, 한국복식학회, 1995.8. p.75
- 35) 양윤정, "현대의상에 표현된 자연주의(Naturalism)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p.44
- 36) 정홍숙, 앞의 글, p.75
- 37) Roy Boyne, 김보현, 신명아 공역, 『포스트모더니즘과 사회』, 한신문화사, 1992. p.257
- 38) 이윤주, "포스트모던 복식에 나타난 패러디 현상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p.50
- 39) 주송, "레트로 디자인은 미래를 지향한다", 「산업디자인」, No.169,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 2000+1.2. p.49
- 40) 이은영, "패션은 언제나 시대의 거울", 「멋」, 동아일보사, 1985.6. 김문정, "20세기말 패션에 나타난 Crossover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5. p.52 재인용
- 41) Caroline Renolds Millbank, 『New York Fashion : The Revolution of American Style』, Harry n. Abrams, Inc, Publisher, p.264. 김문정, 앞의 글, p.53 재인용
- 42) 허정란, "1990년대 복식에 나타난 포스트모더니즘적 특성에 관한 연구", 경성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p.22
- 43) 권영걸 a, "후기산업디자인론", 「디자인」, N0.1, 1985. p.36
- 44) Colin McDowell, 'John Galiano', 『Millennium Mode』, Rizzoli, 1999. p.46
- 45) Valerie Streele, 『Fifty Years of Fashion - New Look to Now』, New He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1997. p.135, 장애란, "펑크룩이 반영된 Vivienne Westwood 작품의 기호적 해석", 「복식」, Vol.39, 한국복식학회, 1998.7. p.205 재인용
- 46) Ash Julit & Elizabeth Wilson, 『Chic Thrills』, Pandora Press, 1992. p.172, 김문정, 앞의 글, p.54, 재인용
- 47) Vivienne Westwood, 「Mode et Mode」, No.299, ÉTÉ '97, Mode et Mode 사, 1997. p.88
- 48) Stephen Gan, 『Visionaire's Fashion 2001』, Universe: New York, 1999. 'FEE DORN'
- 49) Simona Melegari a, "Past References", 『Modain collezioni』, No.112, Zanfi Editori, 1999. p.132-133
- 50) 김민자 b, "한국 패션의 고유디자인에 대한 발전적 모색", 「산업디자인」, No.110,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 1990.6.
- 51) 김문정, 앞의 글, p.39

- 52) 주명희, "크리스티앙 라크르와의 의상에 나타난 원시성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Vol.16, No.1, 1992.2, p.124
- 53) 이상래, "현대 패션 디자인에 나타난 동방풍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5, P.11
- 54) 간문자, "1960년대 저항 패션이 민속풍 패션에 미친 영향", 『복식』, Vol.30, 한국복식학회, 1996, p.156
- 55) 정홍숙, 앞의 글, P.74
- 56) 임영자, 김선영, "현대패션에 표현된 New Orientalism에 관한 연구", 『복식』, Vol.50, NO.4, 2000.7, p.38
- 57) Fredric Jameson, 윤호병의 역, "포스트 모더니즘과 소비사회", 『반미학 : 포스트모던 문화론』, 현대미술사, 1994, p.158
- 58) 이호중, 최미옥, "공간의 경계에 관한 연구", 『한국 실내디자인학회 학술발표논문집』, 제2권 제2호, 2000년 5월, 한국실내디자인학회, p.77
- 59) Alexandra Campbell, 『East Meets West』, Conran Octopus, 1997, p.22-23
- 60) Alexandra Campbell, 앞의 책, p.52-53
- 61) 『Fashion News』, Vol.62, (주)한국종합미디어, 2000.5, p.156
- 62) Simona Melegari c, 'A Trip to Exotica', 『Modain Collection』, Zanfi Editori, No.107, 1998, p.50
- 63) Jean Paul Gaultier, 'Gorgeous Maharaja's Party Held in a Beautiful Mension', 『Collections』, Vol.26, GAP Japan Co., Ltd., 2000, p.12
- 64) "A Passage To India", 『VOGUE Korea』, 한국종합미디어, 1993.4, p.176
- 65) 'Mongolian Descendant', 진태욱, 『ELLE Korea』, 한국종합미디어, 2000.11, p.281
- 66) 전석호 a, 『정보사회론』, 나남, 1997, p.17-31
- 67) D. Bell, 서규환 역, 『정보화 사회와 문화의 미래』, 디자인하우스, 1992, p.34-39
- 68) 김원재, 앞의 글, p.11-12
- 69) 김영우, "과학기술 문화 진흥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연구 : 새로운 과학 기술 문화 개념 및 유형 설정에 입각하여", 과학기술진흥재단, 1992, p. i - ii
- 70) 과학기술진흥재단, 과학기술문화진흥증장기계획, 1994, p.9-10
- 71) 양희영, "20세기 후반 패션에 나타난 절충주의 경향", 숙명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p.23
- 72) 정홍숙, 앞의 책, p.412
- 73) 이정호, 『포스트모더니즘 문화 읽기』, 서울대학교출판부, 1998, p.2, 임영자, 김선영, 앞의 글, p.39 재인용
- 74) 패스티쉬는 문학, 미술 등에서 모방작품을 의미하는데 원본의 고유성을 염두에 두지 않고 중성적인 모방만을 함으로써 새로운 양식의 가능성을 부정하고 유사성을 강조한다. 정홍숙, 앞의 책, 복식용어해설, p.445. 이러한 이유로 인해 남의작품을 자기 것처럼 속이는 표절이나 도용과는 명백하게 다르다고 할 수 있다.
- 75) 김민자, 양학미, 앞의 글, p.70
- 76) 이광래 편, 『해체주의란 무엇인가』, 교보문고, 1989, p.376
- 77) 김성곤 b, 『탈 모더니즘 시대의 미국 문학』, 서울대학교출판부, 1989, p.87-88
- 78) 김성곤 a, 『탈 구조주의의 이해』, 민음사, 1988, p.22
- 79) 김민수 b, 『모던 디자인의 비평』, 안그래픽스, 1994, p.170-171
- 80) 이광재, 앞의 책, p.371-387
- 81) Henry Steiner and Ken Haas, 『Cross-Cultural Design』, Thames & Hudson, 1995, p.10
- 82) Dolce & Gabbana's Spring/Summer 1993 Collection, Ted Polhemus, 『Street Style』, Thames and Hudson, 1994, p.66
- 83) Alessandra Lepri b, 'Body Bags', 『Modain Collezione』, No.112, Zanfi Editori, 1999, p.142
- 84) Stephen Gan, 앞의 책, 'Keuper /Van Benthum'
- 85) Stephen Gan, 앞의 책, 'Maria Cornejo'
- 86) Stephen Gan, 앞의 책, 'Klavers'
- 87) "나오코 히로타의 NAOCA 백 콜렉션", 『산업디자인』, No.170, 산업디자인진흥원, 2000+5.6, p.20-23
- 88) Sarah E. Braddock & Marie O'Mahony, 『Techno Textiles』, London:Thames & Hudson, 1998, p.22
- 89) Stephen Gan, 앞의 책, 'BLESS'
- 90) Stephen Gan, 앞의 책, 'FRED SATHAL'
- 91) Ginette Sainderichin, 『Kenzo』, Thames and Hudson, 1998, p.79